

정읍시 단풍 명품화사업 활기

단풍숲길 조성·내장천변 자전거 도로 등 체험 시설 확충 생태공원·여가캠핑장 조성 완료 ... 관광호텔 건립도 순조

정읍시 단풍명품화사업은 내년 말까지 정읍시 오솔길 등에 5km의 단풍숲길을 조성하고, 내장천변 자전거 도로 등에 단풍명품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정읍시 오솔길 등에 5km의 단풍숲길을 조성하고, 내장천변 자전거 도로 등에 단풍명품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또 매년 내장산과 정읍시 일원에 단풍나무를 지속적으로 심고 가꾸는 등 단풍 관광지의 규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단풍 관련 체험 시설도 대폭 확충하고 있다. 정읍시는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동으로 63억원을 들여 최근 내장산 단풍생태공원조성사업(단풍생태공원)을 완료했다.

내장천수지 위에 들어선 단풍생태공원은 테마별 단풍원과 단풍분재원, 단풍동화숲 등을 비롯한 체험전시관 등을 갖추고 있다. 또 최근 내장천변 자전거길 1.5km 단풍명품길 조성사업과 내장산~아양산 등산로 주변 단풍특화림(3490본 식재) 조성사업도 마무리했다. 특히 단풍생태공원 일대에는 내장산국립여가캠핑장과

과 내장호변 오솔길, 조각공원, 미원수목원 등이 들어서 있으며, 5성급 내장산해동관광호텔 등도 건립 중에 있다. 김생기 정읍시장은 "정읍의 상징이자 소중한 자원인 내장단풍을 지속적으로 식재하고 관리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관광자원의 명성을 이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내장산에는 우리나라에 자생하고 있는 단풍나무 중 11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내장산 단풍은 잎이 아기 조막 손처럼 작다고 해 '애기단풍'으로도 불린다. /정읍=박기섭기자 parksg@



전국 제일의 단풍고장 정읍시가 내장산 단풍명품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28일 정읍시에 따르면 내년 말까지 정읍시 오솔길 등에 5km의 단풍숲길을 조성하고, 내장천변 자전거 도로 등에 단풍명품화 사업을 본격화한다.



고창 '식객' 맛있는 전시회

고창군농업기술센터 생활과학관에서 최근 열린 '식도락 마을 푸드 전시회'에서 참가자들이 요리 솜씨를 뽐내고 있다.

보성군 홈페이지서 독립운동가 나철 선생 만나요

정찬주 작가 作 '단군의 아들' ... 내달 5일부터 게재

내년 흉악 나철 선생(사진) 서거 100주기를 맞아 선생의 숭고한 삶과 정신을 재조명하는 대하 역사소설이 보성군 홈페이지에 연재된다. 28일 보성군에 따르면 1863년 보성군 벌교읍 금곡리에서 태어나 1916년 구월산 삼성사에서 최후를 맞이까지의 나철 일대기를 그린 역사소설 '단군의 아들'이 새해 초부터 군 홈페이지에 연재된다. '단군의 아들'은 보성군 복내면 출신으

로 성철스님, 범정스님, 다산 정약용 등 고승과 역사적 인물들의 삶과 사상을 소설로 다룬 큰 명성을 얻은 정찬주(63) 작가가 집필한다. 정 작가는 현재 전남도청 홈페이지에 역사소설 '이순신의 7년'을 인기리에 연재하고 있는 소설가이기도 하다. '단군의 아들'은 새해 1월 5일부터 8월말까지 35주에 걸쳐 매주 화요일 군 홈페이지



지를 통해 독자와 만날 계획이다. 이 소설은 이 과거에서 장원급제해 관료의 길을 걷다 일제의 침략야욕에 항의해 사표를 던지고 독립운동을 뛰어들어 고종과 애국 5적 처단을 추진한 배경, 민족 정기를 수호하기 위해 단군신앙인 대종교를 증광한 일 등 집중 재조명한다. 특히 흥암과 생사고락을 함께한 수많은

군산 친환경 브랜드 '새들군산'으로 통합

군산지역 친환경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가 '새들군산'으로 최종 확정됐다. 28일 군산시에 따르면 새들군산은 새만금의 '새', 황금뜰들의 '들'에 군산을 합해 새만금과 청정환경을 상징한다. 군산시는 난립한 지역의 개별브랜드를 통합하고 소비자에게 신뢰도 높은 농특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공동 브랜드를 만들었다. 시는 내년에는 관내 학교에 새들군산 친환경 쌀을 공급하고 로컬푸드직매장에서 새들군산이란 공동 브랜드를 붙인 농특산물을 판매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관내 717개 농업경영체(698개 품목)에 지역 공동상표인 '새들군산' 사용을 승인했다. 공동상표 사용을 원하는 생산자는 내년 2월까지 읍면동에 신청해 승인을 받으면 된다. /군산=박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nogusu@

전주 영화의 거리 '동그라미 제과' 60년 추억 남기고 사라진다

전주시 완산구 '영화의 거리'에서 1950년대부터 시민과 함께해온 빵집 '동그라미제과'가 60년의 역사를 접고 뒤안길로 사라진다. 동그라미제과는 전주 사람이나 전주 영화의 거리를 찾은 방문객이면 한 번쯤 이 빵을 샀을 정도로 지역 명물이지만, 대기업 프랜차이즈 빵집이 골목상권까지 잠식하면서 경영난 등으로 폐업하기로 한 것이다. 동그라미제과는 1956년께 전신인 '호남제과' 때부터 지금의 자리를 지켜 왔다. 주인 전서봉(68)씨는 지난 1976년 호남제과를 인수해 상호를 동그라미제과로 바꾸고 지금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제과점이 있는 건물도 일제강점기 때 지은 것으로 영화의 거리에서는 가장 오래됐다. 한때 동그라미제과는 다음날 판매할 빵을 다 만들지 못할 정도로 호황을 누렸지만, 프랜차이즈 빵집 등에 밀려 옛 추억이 됐다. 동그라미제과는 지난 27일 마지막 빵 굽기를 했다. 올 연말까지 남아 있는 빵과 점 등을 판매하고 폐점한다. 전 대표는 "나도 들고 자식들도 모두 키웠다. 영업도 프랜차이즈 빵집들 때문에 예전 같지 않아 고심 끝에 문을 닫기로 했다"며 "한평생 운영한 가게를 닫는 것이 너무 아쉽고, 아직도 잊지 않고 가게를 찾아 주시는 단골손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남원시, 농촌 노후주택 개량 자금 지원

남원시는 28일 "낡은 주택을 개량하거나 새로 집을 짓는 농민에게 저리의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촌에 사는 주민과 귀농·귀촌인이다. 토지나 주택 등의 담보물을 평가해 나온 대출가능 한도 내에서 연리 2.7%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주택 규모는 전체 건물면적이 150㎡ 이하면 된다. 희망자는 내년 1월 15일까지 자신이 사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남원=정규집기자 jgs@



광양제철소 "따뜻한 마음 전해요"

사랑나눔복지재단에 이불 150채 기부

포스코 광양제철소(소장 안동일)가 최근 사랑나눔복지재단에서 '행복담을 이불 나눔' 이불 150채(1200만원 상당)를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전달했다. 광양제철소가 기부한 이불은 광양시 사회복지과에서 선정한 지역 홀몸 어르신 15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불 전달일 이불은 포스코페리리 직원들의 기부로 운영되는 포스코1%나눔재단에서 지원했다. 문승표 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은 "광양제철소 직원들이 매년 기부를 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데도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제철소와 포스코1%나눔재단은 올 한해 동안 아동세탁차량 지원, 재능봉사단 운영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 나서서 등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전원주택/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대지 및 전 2,305㎡ 주택2동 각종 유실수 화초 식재됨 전망양호 매3억 8천만원
2. 나주시 용산동 대지 및 전5,100㎡ 황토주택3동 교통편리 매7억
3. 나주시 봉황면 축석리 면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2,187㎡ 주택96㎡ 공장75㎡ 점포26㎡ 매2억4천만원
4. 나주시 남평읍 남평리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주유소, 상가, 식당, 카페숍 최적지(신주목/구창고매 5억9천)

농지/임야

1.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전1,528㎡ 혁신도시인근 2차선 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매5억8천만원
2.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6,331㎡ 혁신도시 근거리 계획관리지역(일부 농림지역) 매7억6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담4,000㎡ 혁신도시인근 매2억
4. 나주시 산포면 내거리 전 김나무 과수원 6,165㎡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근거리 매3억
5.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집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접 매7억
6. 나주시 금천면 촌곡리 담9,341㎡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2억7천만원
7. 나주시 산포면 신제리 전 7,273㎡ 혁신도시근거리 보전 관리지역 연수원 공장적합 투자유망 매8억5천만원
8. 나주시 세지면 오봉리 담13,530㎡ 면소재지 매2억4천만원
9. 나주시 금천면 원곡리 담 4,807㎡ 생산관리지역 농로양호 투자유망 매1억6천만원
10. 나주시 남평읍 광촌리 임야1,384,140㎡ (대지, 농지포함) 소나무양호 수련원 선산 적합 매30억원
11.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 전 배과수원 24,884㎡ 매4억8천만원
12. 영암군 금정면 청룡리 임야102,480㎡ 도로양호 일부개간 도로양호 투자유망 매3억3천만원
13. 나주시 산포면 신제리 전 배18년생 과수원 7,934㎡ 혁신도시 1km 투자유망 매7억2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매·교환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감정가이하

- 무안군 망운면 옥지에서 650m 떨어진 독립식 별장, 전원주택지, 요양시설용 적합, 공사가 2억6천 감정 5억3천천선 매도 4억2천
- 대인시장 인근 대지 394㎡, 건평 1455㎡, 전세2억, 월700선 15억5천
- 보성군 화천면 영천리 11990㎡ 전원주택 단지·팬션·종교시설·요양 시설 등 다용도 은행 8천 매도 3억2천6백만원
- 장성군 삼계면 주산리 대지 883㎡ 매도 9400만원
- 담양군 남면 광주읍 부근 대지 2208㎡ 빌라, 식당용 적합 5억 8천
-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펜션 적합지 2161㎡ 교환가능 3억3천
- 전원주택 남평읍 오거리 대지 536㎡ 건평 73㎡ 9500만원
- 담양읍 APT 부지 2중 주차기 438㎡(1463평) 은행7억 매도 15억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자연복지 1861㎡ 기든 별장용 적합 1억천
- 장성군 북이면 사거리 펜션·전원주택 적합 5000여㎡ 평당 8만원
- 화순군 이서면 안산리산 34809㎡ 매도 1억5백
- 나주시 산포면 등정리 도로접 1884㎡ 공장 등 적합 2억 9천
- 광안구읍동 평동중학교, 평동공단 부근 1중주차지 1787㎡ 빌라·원 료 등 적합 공사지가 4억 매도 평당 115만원(6억2천)
- 영광로 5가 건물 대지 265㎡ 건평 995㎡ 매도 8억8천
- 영광군 군서면 송화리 계획관리지역 전원주택 적합 전 9917㎡ 1억
- 순창군 북흥면사무소 부근 대지 991㎡ 전원 주택 적합 4200만원
- 진도군 고교면 산 5101평 화순 동면 천덕리 대지 97평 5천만원
- 화순군 동면 전원 주택지로 조성된 땅 5086㎡ 대지 2500만원
- 나주시 아파트 21평형 분양가로 각종 토지와 교환가능 분양 1억2천 대출 6300만원 임대도 가능
- 신기동 원룸 건물 대지 67평 원룸 10개와 35평형 인접, 인접은 공실 보증금 6천에 월 190선 매도 4억6천
- 담양군 수북면 관리지역 7971㎡ 전원주택들 다용도 15억
- 함평군 신광면 대동 저수지 부근 임야 262810㎡(75000) 한옥마을·전원주택 단지용 적합 5억 6천만원
- 영암군 삼호읍 상업지역 221평 115평 평당 160만원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청과 한전 부근

법원경매(공매, NPL)

조여사 추천물건
010-6211-4585

- ★북구 오룡동 8층근린시설 첨단산업단지내 대지1652.9㎡ 건물2991.3㎡ 건물상태양호 감정가35억4천2백 최저가9억8천3백 감정가의56%
- ★화순군 동면 언도리 골프연습장 및 골프장 토지146411㎡ 건물3290㎡ 화순읍에서5분거리위치 감정가84억4천3백 최저가37억7천8백 감정가의45%
- ★북구 두암동 쌍둥이주유소부근 지하1층~지상4층 건물리모델링중, 왕복4차선도로접 코너입지 감정가10억4천9백 최저가7억3천4백 감정가의70%
- ★나주시 경현동 지하1층~지상2층 연수원건물 대지1,488㎡ 건물2,075㎡ 경현리유원지부근 감정가30억6천5백 최저가17억1천6백 감정가의56%
- ★서구 마죽동 주유소 광주아울렛부근 대지1132㎡ 건물277.9㎡ 2층건물 감정가 9억9천6백 최저가 6억9천7백 접근성, 광고효과★★★★ 감정가의70%

※전지역 병원(부지)매매, 매입 상담
맞춤형 부동산 컨설턴트 (주)다와옥션

개인 병원 부지

- ☑ 상업지역 108평
- ☑ 사통팔달 교통요지
- ☑ 터미널부지 내
- ☑ 인구증가 예상지

귀향공인
010-5236-7458
KTX 개통 송정역 인근 부동산전문

ABC협회인증
호남 최대 발행 부수

독자와 함께 걸어온길 63년

光州日報

에능

광고문의 (062)227-9600
신문구독 (062)220-0551
예향구독 (062)220-0550